



2013 1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제337호

발행 : 김성규 / 총무 : 김용인 010-6505-3704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
신년사

癸巳年에 부치는 글

南淵 / 李晁久



智慧의 상징인 뱀(蛇)이 주관하는 희망찬 계사년(癸巳年)이 밝았습니다. 同期 여러분들의 삶에 홍복(鴻福)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칠십에 들을 더하는 노우(老愚)한 내 모습을 보며 歲月이 流水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孔子는 2500년 전에 “칠십이종심소욕불유거(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 했는데, 즉 칠십 나이가 되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사람이 지켜야할 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분은 死後 오랜 歲月이 흐르는 속에서도 聖人의 禮遇를 받는 분이 되었다. 그러나 生存 當時의 공자는 民草들의 눈에 바보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操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말쑥한 젊은이가 公子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그곳 마을 골목시장 商人에게 공자의 집을 물었다. 商人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답했다고 한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싱겁기 짝이 없는 키다리 늙은이를 무엇때문에 찾느냐고 하며 그 노인은 喪家의 개마냥, 장터에 오면 마음씨는 좋지만 싱겁기 짝이 없는 키다리 바보노인이라고 하며 저기 은행나무 아래집에 가보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民草들의 삶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禮나 知識이 필요했는가?

孔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어려운 삶의 民草들에게는 바보가 되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벗이 되어줌으로써 中國大陸의 마음을 사로잡은 內功을 쌓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唐나라 때 詩人 杜甫는 曲江이란 詩句의 내용이 아마도 亂世에 月給도 늦고 해서 가끔 외상술에 취해 귀가했는데 칠십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다가 머리카락까지 몇 개 안 남은 늙은 자기 모습을 보며 변명이라도 하듯 칠십 나이는 古來稀라고 하며 人生無常을 읊었다.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이 時代의 우리들의 칠십 나이는 물론 長壽時代에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볼만 하다.

나는 落書 정도로만 즐기는 書畫로 消日하며 잠깐 생각해 보았다. 칠십이 넘으면 때때로 지혜를 감추고 바보 같은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健康을 주는 內功을 쌓는 것이 아닐까?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도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사실 어렵다. '뉘함을 아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하고, '寬容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急함을 경계하고 忍耐를 이용하라'고 하며 淸나라 때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江湖에서 書畫家로 더욱 유명해진 鄭板橋의 '처세의 바보경(經)'에서 한 말인데 이것이 화합(和合)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뭘 바랄 것이 있겠는가?
오직 좋은 만남뿐이다. 새해에는 무거운 마음일랑 내려놓고 넉넉한 평상심(平常心)으로 자기만의 기쁨을 얻는 자득기락(自得基樂)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바보가 되어봅시다.

2013년 1월 1일 아침에...

謹賀新年

南淵 李晁久



黑龍北去 黑巳復 (흑룡북거 흑사복)
白月西幽 赤日登 (백월서유 적일등)

흑룡이 북쪽으로 사라지니
남역의 흑사가 다시 돌아오고,
흰 달조차 서쪽으로 숨으니
마침내 동녘에는 붉은 해가 솟네

※ 黑龍 - 壬辰年
黑巳(蛇) - 癸巳年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올해는 동창회 재정도 바닥이라 그냥 평범한 월례회로 2012년을 마감하려던 총무 생각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회장 직권으로 김정수 동문이 경영하는 바다여행에서 뷔페로 송년회를 한다고 지난 월례회에서 발표를 하였으니 힘없는 총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아침부터 많은 겨울비가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진눈개비로 변하여 교통이 마비상태라 혹시 참석률이 저조 할까봐 문자 메시지를 두 번이나 띄우고 준비 차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창회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치매예방으로 카드놀이와 바둑을 두는 친구들이 12명이나 모여있어 참석인원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았다.

뷔페 음식이라 월회 때와는 다르게 정시에 최대한 많이 모여 음식을 개방하니 모두들 골고루 나누어 먹었고, 2부 행사로 들어가자 몇몇 친구들은 슬슬 꿈꾸니를 뺀다. 모처럼 참석한 이상호 동문의 ‘해변의 여인’ 과 광진스님의 ‘충청도 아줌마’ 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고, 회장님의 18번 허리띠 색소폰 연주는 분위기 상승에 최고였지만 날씨 관계로 내년을 기약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2012년 송년회를 무사히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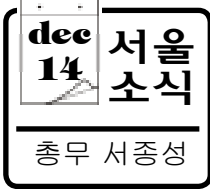
참석자

강동균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방태 김석백 김성규 김용인 김채열 박종근 박소학 김정수 김태욱 박영환 변재국 변재웅 변중일 손동개 손기홍 이영부 이상호 이성환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종량 이종섭 장영의 장정치 이복열 이아인 장의건 정정용 제갈선광 조정웅 지해경 최광수 황희생 이상 39명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2년 12월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비 고		적 요	금 액	비 고	
회비	900,000	김한경 손기홍 신용보		식대	800,000	뷔페	
		이복열 이영부 각15만		회보	210,000	인쇄	
		김준형 이무일			58,490	발송	
이아인 각5만원		경조비	100,000	김성규 모친상			
송년회비	380,000	38명(참가비 1만원)					
				벌치대	550,000	송년회 선물	
광고	30,000	김성규		노래방비	301,000	송년회	
찬조	100,000	김성규					
				수당	150,000	총무수당	
수입계	1,410,000			지출계	2,169,490		
전월이월	6,254,407			차기이월	5,494,917		
합 계	7,664,407			합 계	7,664,407		

본부동창회 제작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구랍 14일 오후 6시,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돈존에서 '송년의 밤'을 가졌다. 32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여 화기에 애한 속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송구영신의 덕담을 나눴다. 이날 친구들에게 권국주 동문이 멋진 달력(45부)을, 안병근 동문은 고급 양말(40 세트)을 선물했다.

그리고 안 동문은 송년회식비도 부담했다.

참석자

구진웅 김대식 김덕조 김복남 김우철 김태조 김학영 노광수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일곤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송정명 안병근 유찬중 이석우 이실 이영우 임홍무 정영기 제정택 전승치 조용석 조재호 주유삼 하무정 홍창우 황일웅

♣ 축하신년 ♣

계사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1일 새해 아침

회장 박박중

총무 서종성 배상

동문 동정

♣ 김기현 동문

동문의 새집 새주소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92번길 6
우편번호 641-872

♣ 김대균 동문

동문께서 신병으로 지난달 중순경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지난 12월28일 퇴원하여 현재 자택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신년에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김중화 동문

2012년 12월 14일, 사단법인 나라사랑 포병연합(대한민국 포병전우회)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마고21회 棋友會 바둑대회 소식

일시 : 2012. 12. 11
장소 : 정석기원(불중거리)

참석자

김동열 김준형 박소학 박필근 배중길 손기홍 손동래 신창환

우용태 이영부 이중섭 장창봉 조중석

우승 : 이중섭 준우승 : 김동열 3등 : 이영부 4등 : 박소학





저무는 2012년의 송년모임은 연산 로터리에 있는 해암취 폐에서 가졌다. 이날 이황구 회장은 연하장,

黑龍北去 黑已復(흑룡북거 흑사복)

白月西幽 赤日登(백월서유 적일등)이란 한시를 전달하고 뜻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산본부에서 타월과 양주 2병,

대선소주에서 쪽풀이 2박스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김대균 친구와 김청조 친구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였다.

참석자

권기옥(2) 김지남(2) 김효석 남원일(2) 박진형(2) 이강복(2) 이의승(2) 이장우 이황구 윤성업 정현경 조영민(2) 조창식(2) 최진화 조창제 23명

동문합동산행기(부산주최) 2012. 10. 24~25

마산 · 부산 · 서울
합동 산행기 정현경 (3)

노래방 갔던 친구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니 술판이 대충 정리되고 잠자리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함께 밤을 새웠으면 하는 친구들 몇몇이 남은 친구들의 편한 잠자리를 위해 귀가했다는 얘기가 아쉬웠다.

가을밤 정적과 함께 하루가 지나고 이른 새벽 4시인데도 노인들의 잠자리인지라 몇몇이 잠을 깬는지 웃기는 얘기소리들로 새벽 잠을 날렸다. 재국이와 의신이와 해룡, 너희들의 쌍고동 코골이에 잠을 설쳤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쩔 텐가... 용인아, 너는 왜 자다가 일어나 중얼대고, 웃고 야단이니? 어디서 못 다한 푸닥거리라도 있는 게니?

그리고 부산에서 묵은 게 없어 변소도 갈 생각이 없다고 찡찡 그랬는데, 부산동기회 때 함 오렴. 네 배 불룩이 걱정 않고 배터지도록 입에 담아 줄게.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는 종성이, 얘기 그만하고 잠 좀 더 자자고 불멘 소리하는 선

광이, 평생 처음 변소에 절하면서 잠을 잤다는 중량이, 아랫동네 갈매기들과 같이 못 자겠다며 긴 시간 핸들 잡을 일이 걱정이라며 투덜대는 허호 얘기 소리 다 들으면서 잤다는 '광수', 얘기소리들에 아랑곳 않고 잠깨지 않은 '유삼' '재호' '박중'이 '정치' '진화'가 어쩔 부러웠다면.

산성의 맑은 새벽에 조재호의 '회심가' 한 곡을 들어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10월 25일, 역시 맑고 쾌청한 천고마비지 절의 전형적인 가을 아침을 맞았다. 모두 18명이 아침식사를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X팔 놔들이 잤다고 또 한 번 웃음으로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07:30, 산장 주인이 아침 식사는 국 한 그릇에 남자들 힘이 솟는다는 염소사골탕으로 올렸다고 자랑했다. 어젯밤의 술기운이 얼큰한 해장국으로 말끔히 씻어지는 기분이었다. 간단히 아침을 끝내고 김수곤 친



구가 농심호텔과의 특별한 교섭으로 미니 버스를 불러 왔기에 모두가 탑승하면서 태종대로 향했다.

10;10, 영도 태종대 순환열차 ‘다누비’의 승차장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산



성에서 가져온 막걸리에 오텍안주로 어젯밤의 취기를 달랬다.

‘삼, 인, 중, 신’ 이가 공원 벤치에서 식후 담배 맛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용인이가 한마디 조크를 던졌다. “저 놈들 아직도 저승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10;40, 열차의 출발로 태종대 전경을 거치면서 전망대에 도착했다.

너무 좋은 날씨에 오륙도와 멀리 대마도 쪽의 바다 풍광이 저절로 감탄을 자아냈다. 해경이는 평생에 처음 와 보는 태종대가 말할 수 없는 장관이라고 기쁨을 감추



지 못했다.

11;30, 일행은 태종대 관광을 마치고 1박 2일간의 우정을 마무리할 광안리 ‘수변공원’의 오찬장으로 향했다. 아침부터 진화와 영민이가 부산

친구들과의 아쉬운 석별의 장을 ‘맛’과 ‘멋’을 함께할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야외 오찬상을 김희숙, 이휘숙



두 여사님의 감사한 마음을 빌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시원한 광안리 바닷가, 광안 대교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 둘러

앉아 싱싱한 전어회에 김밥을 곁들인 점심으로 지난밤의 얘기들을 나누면서 화창한 이 가을,



눈에 보이지 않는 풋풋한 우정과 최진화 친구의 애씀에 수고의 박수까지 모아 그 리움을 하나 더 추억으로 만들었다.

14;00, 부산에서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서울팀은 귀가 길에 화왕산을 찾고, 30일은 마산 친구들 모두가 주왕산 나들이를 간다고 하니 ‘얼씨구 좋네, 우리 친



이렇게 소개하는 명소의 안내판에는 사진이 함께 있어 사진에 있는 경관을 구경하면서 올라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내판만 슬쩍 보고 지나치는데 여유를 가지고 경관을 감상해 가면서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재미도 꽤나 쏠쏠한 맛이 들어 있나니.....

산허리를 돌아 오솔길을 따르면 나무테크길과 아담한 다리를 만나고 다리를 건너면 계곡의 넓은 암반이 펼쳐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밀양의 오천평석 보다는 더 넓으니 만평석이라 이름도 지어 본다. 작은 아취교를 건너면 시멘트포장길이 잠시 계곡과 이별을 하지만 끝머리에 다다르면 매점1호라는 작은 가게 뒤로 아스팔트 포장길이 열린다. 포장길 왼편은 청량사 가는 길이라 하니 처음 갈라졌던 길이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 포장길을 가로 질러 느티나무가 있는 시멘트길로 들면 소리길 쉼터를 만나고 오른쪽에는 연두색의 펜스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탐방지원센터에 다다르면 계곡의 물소리가 목청을 높여 반겨주고 이어 산길로 접어들면 가야산 소리길을 표시한 산뜻한 입구가 반기고 이어 흥류동 계곡의 절경사진과 가야산국립공원을 알리는 아름다운 사진들이 발길을 유혹한다. 이어진 길에는 ‘가야19명소 무릉교’ (무릉도원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나무테크로 꾸며져 한없이 뻗어 있고 끝자락에 닿으면 흥류동 테마로드 3.비움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름그대로 호젓한 숲길이라 마음이 저절로 비워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겹게 손을 맞잡고 걷다보면 공기마저 달콤한 맛을 낸다. 훈훈한 기분으로 가다보니 어느새 ‘가야19명소 칠성대’ (북두칠성에 예향하는 곳)에 이르고 눈앞에 펼쳐진 하얀 현수교와 깎아지른 바위절벽 그리고 넓은 계곡을 보노라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인가 착각을 하게 된다. 신선이 된 기분으로 현수교를 건너면 오붓한 산길이 이어지고 숲길을 마저 오르면 테마로드 4. 함께 가는 길이 열린다.

말 그대로 오른쪽의 바짝 붉은 큰 도로에는 대형버스들이 함께 가자고 힘을 쥐어짜며 쫓아온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나무식탁과 벤치가 있어 식사나 간식을 먹으며 쉬어 가라하고 이어지는 숲길에는 테마로드 5. 칭찬하기길 이라고 크나큰 게시판에 싸인 판을 만들어 놓았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일까 글씨가 쓰인 하얀 종이가 일부 찢겨져 길바닥에서 비를 맞고 혼자 놓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 구들’ 부디 건강 잃지 말고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며 만남 가지다가 내년 봄에 또 어디선가에서 손잡음 인사 나누워요.

* * *

화창한 가을의 1박 2일, 짧은 휴식이 끝났다. 가을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가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고 싶다. 남은 한 잎 잎

새까지 황홀하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곱게 물들이고 쓸쓸이 낙엽으로 사라져 가야하는 가을, 우리의 인생도 이 가을처럼 마지막 가는 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아름답게 사라져 갈 수만 있다면..., 가을처럼 풍요로운 인생, 가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인생이고 싶다. *

천년

의 세월동안 지혜를 모아 정리하고 오만 이천 여자 한자 한자를 마음으로 새긴 인류문명의위대한 유산! 대장경!!

소리길 - 해인사 (1) 장정치

마침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 문화축전」이 9월23일부터 11월6일까지 45일간이나 열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뭉그적거리고만 있다가 놓치기는 아깝고 하여 마지막 날인 일요일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평소 때라면 2시간30분이면 넉넉할 거리를 4시간30분이나 잡아 묵고 주차전쟁까지 치르느라 맥이 있는 데로 다 빠졌다. 그



놈의 소리길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필이면 이런 날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후회가 목구멍을 막아 말문이 닫혔다. 그러나 길게 후회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꾸물거리다가는 어두운 산길을 또 더듬어 내려야 할 판이니 서둘러 탐방로를 찾는다. 행사장 입구 각사교 바로 앞 왼편에 「황산1구 마을」이라는 표지석 큰놈이 서 있어 찾기는 어렵지 않다. 또 흙길에는 소리길이라는 이름표를 단 나무 아취가 있어 입구임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조금 가다보면 종합안내판이 섰는데 일명 테마로드를 안내해 준다. 경관과 지형에 맞추어 1. 마음으로 걷는 길, 2. 돌아보는 길, 3. 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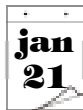
의 길, 4. 함께 가는 길, 5. 칭찬하기, 6. 침묵의길, 7. 미소길, 8. 맨발로 걷기, 9. 마음전하기, 10. 명상의길 이렇게 나누어진 탐방로를 명칭에 따라 체험해 보는 것도 그냥 터벅터벅 거리는 것 보다는 좋더라. 이어진 시멘트포장길을 따라 걸으면 계곡의 물소리가 발걸음에 따라 장단을 맞추어 주고 길 왼편 빈 밭에는 코스모스, 금잔화가 만발하여 시렸던 마음을 보듬어 준다. 얼마쯤 가다보면 갈림길을 만나지만 나중에는 만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왼편 길은 청량사로 빠진다 하니 오른쪽의 해인사표시를 따라 들어 흙길을 밟으면 ‘가야19명소 갯떡원’ (무릉도원을 상상하며 가야산을 바라보는 곳)을 만나고 다시 ‘가야19명소 축화전’ (계곡에서 흘러온 꽃잎을 따라 올라가는 곳)이 가다리고 있다.

7쪽으로 이어짐 -

2013년 1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일시 : 21일(월) 오후 6시00분
장소 : 맛있는생오리(223-5289)
산호동네거리 산호제일약국 옆
산호초등학교 쪽



부인회

일시 : 21일(월) 12시 30분
장소 : 하성이불(223-6160)

